

이옥 <지주부>의 거미 형상과 인간 성찰

류동리*

〈차 례〉

1. 서론
2. <지주부>의 거미 형상과 인간 비판
 - 1) 거미에 대한 인간의 규정과 거미의 발화
 - 2) 거미의 자기 변론과 인간 판단의 역전
 - 3) 벌레의 욕망 분류와 인간 사회 비판
3. 전통적 미물 글쓰기와 <지주부>의 변주
 - 1) 포식자의 표상과 거미 형상의 전환
 - 2) 명대 미물 우언과의 거리—<헐서대>·<문대>를 중심으로
 - 3) 동시대 거미 글쓰기와 이옥의 관찰 시선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옥(李鉉)의 <지주부(蜘蛛賦)>를 중심으로 거미 형상의 변화와 그에 내재된 인간 성찰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지주부>에서 거미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존재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자는 거미가 줄을 쳐 다른 벌레를 잡는 행위에서 꾀하는 마음인 기심(機心)을 읽어 내고, 거미를 “벌레 가운데 도적(蟲中之賊)”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거미는 자신의 줄이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의 수단임을 밝히고, 인간의 어망과 사냥, 법에 의한 포획을 자신의 행위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인간의 판단 기준을 되묻는다. 이 과정에서 거미는 인간에게 판단되는 대상에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발화 주체로, 다시 인간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체로 이동한다.

거미의 변론은 자기 생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나비·파리·매미·벌·모기·잠자리의 습성을 차례로 분류하면서 화려함과 아침, 이익 추구, 자기 과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시, 명분과 사욕의 불일치, 은밀한 착취, 경박함과 같은 인간 사회의 여러 욕망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거미줄은 단순한 포식의 장치를 넘어 인간의 포획 방식과 욕망의 구조를 함께 비추는 공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주부>의 핵심은 거미를 부정적인 존재에서 긍정적인 존재로 전환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과 미물 사이에서 판단의 위치를 이동시켜 인간 자신의 행동과 판단 기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본고는 전대의 거미 형상과 이옥의 <담충(談蟲)>을 함께 검토하고, 명대(明代)의 <힐서대(黠鼠對)>와 <문대(蚊對)>를 제한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힐서대>의 쥐가 자신의 작은 절도와 인간의 더 큰 악탈을 대비하여 인간의 선택적인 처벌 기준을 비판한다면, <문대>에서는 모기가 직접 발화하지 않고 인간인 동자의 논변을 통해 인간 중심적 감각과 같은 인간끼리 서로 해치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지주부>에서는 판단의 대상이었던 미물이 직접 발화하고, 인간의 언어와 판단 기준을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이덕무(李德懋)와 남공철(南公轍)의 거미 소재 글을 살펴본 결과, 거미의 움직임과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시선은 이옥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옥은 이러한 관찰을 거미의 자기 변론과 인간 비판의 구조로 확장한다. 즉 <지주부>의 특징은 거미를 처음 세밀하게 관찰한 데 있기보다, 미물에 대한 관찰을 인간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글쓰기로 전환한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주부>는 조선 후기의 세밀한 사물 관찰과 이옥 특유의 인간 성찰이 결합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이옥, <지주부>, 거미 형상, 미물 글쓰기, 인간 성찰

1. 서론

조선 후기 문인 이옥(李銍)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과 미세한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익숙한 의미에 머물게 하지 않는 글쓰기를 보여 주었다. 특히 벌레를 다룬 여러 글에서는 인간이 사물을 바라

보는 위치와 판단의 기준을 되묻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지주부(蜘蛛賦)>¹⁾이다. 이 작품은 거미가 줄을 치고 다른 벌레를 포획하는 평범한 장면에서 출발하지만, 거미를 제거하려는 인간과 이에 맞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미의 문답을 통해 인간과 미물 사이의 판단 관계를 뒤집어 놓는다. 따라서 <지주부>에서 중요한 것은 거미라는 이색적인 소재 자체보다, 인간에게 관찰되고 규정되던 미물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얻고 다시 인간의 판단을 문제 삼는 위치로 이동하는가에 있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이자는 거미에게 꾀하는 마음인 기심(機心)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생명을 잡는 거미를 “벌레 가운데 도적(蟲中之賊)”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거미는 자신이 줄을 치는 목적을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생존 방식을 죄로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이어 인간의 어망과 사냥, 법에 의한 포획을 자신의 거미줄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인간이 거미에게 적용한 판단 기준을 인간 자신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여기에서 작품의 초점은 거미의 포식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정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그러한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위치와 기준이 과연 자명한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옮겨 간다.

더욱이 <지주부>의 거미는 자기 생존을 변론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나비·파리·매미·벌·모기·잠자리의 습성을 차례로 분류하면서 화려함과 아첨, 이익 추구, 자기 과시, 명분과 사욕의 불일치, 은밀한 착취, 경박함과 같은 인간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인간에게 판

1) 본고에서 인용하는 <지주부>의 원문은 이옥, <지주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4(자료편·원문), 휴머니스트, 2009를 저본으로 삼았다. 번역문은 <지주부>의 경우 『완역 이옥전집』 1을 참조하되 원문의 의미와 본고의 논의 맥락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한 판본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명, 권수와 쪽수만 밝힌다.

단발던 거미가 작품의 후반에서는 오히려 다른 벌레와 인간 사회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지주부>를 단순한 미물 옹호나 생명 연민의 작품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거미의 포식성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작품 역시 거미를 무고하거나 선한 존재로 바꾸어 놓지 않는다. 대신 인간과 미물 사이에서 판단하는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인간이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와 행위를 낯설게 보게 한다.

<지주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밝혀 왔다. 이정선은 <지주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 전대 문학의 거미 형상과 작품의 서술 구조를 검토하였고, 특히 이규보(李奎報)의 <방선부(放蟬賦)>와 달리 <지주부>에서는 거미가 직접 자신의 행동을 변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이옥이 문체 문제를 겪던 시기와 연결하고, 거미의 자기 변론을 작가의 현실적 처지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다.²⁾ 이 연구는 <지주부>의 거미가 기존의 부정적인 포식자 형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화 위치를 획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의 연구는 <지주부>를 이옥의 벌레 인식과 사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김향남은 이옥의 벌레 글쓰기에서 인간과 미물 사이의 고정된 위계를 상대화하는 인식을 살폈으며,³⁾ 김정미는 이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옥이 각각의 존재가 지닌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고 보았다.⁴⁾ 박수밀은 이옥 문학의 생태적 글쓰기와 자기 패배의 글쓰기에 주목하면서 인간

2) 이정선, 「李奎의 <蜘蛛賦> 考察」,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41~164쪽.

3) 김향남, 「李奎의 ‘벌레(蟲)’에 대한 인식과 문예적 의미」, 『국어국문학』 174, 국어국문학회, 2016, 123~152쪽.

4) 김정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벌레에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34쪽.

이 사물 앞에서 자신의 기존 판단을 수정하게 되는 과정을 해명하였다.⁵⁾ 신익철은 일상성과 사물 인식의 측면에서 이옥이 일상의 작은 사물을 새로운 세계 인식의 계기로 삼는 특징을 밝혔고,⁶⁾ 민희주는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의 교차를 통해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이옥의 글쓰기 방식을 논하였다.⁷⁾ 또한 임유경은 이옥의 우언적 글쓰기에서 사회 현실과 인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검토하였다.⁸⁾

이러한 연구는 <지주부>를 작가의 처지, 생태적 인식, 존재론, 사물 인식, 우언적 글쓰기 등 여러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거미의 의미가 단순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거미의 서술적 위치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규정되는 포식자로 등장하고, 이어 자기 행동을 설명하는 변론자가 되며, 마지막에는 인간과 다른 벌레의 욕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존재로 바뀐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미의 상징적 의미를 하나의 가치로 확정하기보다, 판단의 대상에서 발화의 주체로, 다시 인간의 판단을 되묻는 주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주부>의 구조를 다시 읽고자 한다.

또한 <지주부>의 특징을 이옥 문학 내부에서만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거미는 이옥 이전의 문학에서도 포식과 거미줄이라는 특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아 왔으며, 명대(明代)의 미물 우언에서도

5) 박수밀, 「이옥(李鉦)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325~356쪽; 박수밀, 「李鉦의 문학에 나타난 자기 패배의 글쓰기」, 『동방한문학』 73, 동방한문학회, 2017, 245~268쪽.

6)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 인식」, 『한국실학연구』 12, 한국실학학회, 2006, 181~213쪽.

7) 민희주, 「李鉦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259~286쪽.

8) 임유경, 「無名子 尹穉와 文無子 李鉦의 寓言」, 『이화어문논집』 41, 이화어문학회, 2017, 51~78쪽.

작고 낮은 존재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글쓰기가 확인된다. 따라서 <지주부>의 특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미 형상과 미물의 변론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유사한 미물 소재의 작품을 모아 기계적으로 병렬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체의 작품을 동일한 비교 조건에 놓기보다, <지주부>의 거미가 어떤 지점에서 기존의 미물 글쓰기와 이어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변주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참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뇌례(雷禮)의 <힐서대(黠鼠對)>⁹⁾와 방효유(方孝孺)의 <문대(蚊對)>¹⁰⁾를 보조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한다. <힐서대>의 쥐는 곡식을 훔친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작은 절도와 인간 사회의 더 큰 악탈을 대비하여 인간의 선택적인 처벌 기준을 문제 삼는다. 이 점은 자신의 포식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어망·사냥 법을 되묻는 <지주부>의 거미와 일정한 구조적 접점을 가진다. 반면 <문대>의 모기는 직접 발화하지 않으며, 동자의 논변을 통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감각과 같은 인간끼리 서로 해치는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두 작품은 <지주부>와 동등한 위치의 주요 분석 대상이라기보다, 미물을 통해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 속에서 <지주부>의 발화와 변론 방식이 지닌 특징을 밝히기 위한 비교 항목으로 다룬다. 이 점에서 본고는 세 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료만으로 이육이 <힐서대>나 <문대>를 직접 읽고 <지주부>를 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 雷禮, <黠鼠對>, 黃宗義 編, 『明文海』 卷137, 中華書局, 1987, 1375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힐서대>의 원문은 모두 같은 쪽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출전을 반복하여 밝히지 않으며, 번역은 모두 필자가 하였다.

10) 方孝孺, <蚊對>, 徐光大 校點, 『遜志齋集』 卷6, 寧波出版社, 1996, 195~197쪽. 이하 <문대>의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또한 <지주부>는 부(賦)의 형식을 취하는 반면, <힐서대>와 <문대>는 대(對)를 중심으로 하는 산문적 논변의 성격이 강하며, 발화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비교는 문체적 동일성이나 직접적인 수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물이 인간의 판단을 되돌려 주는 서로 다른 방식의 차이를 통해 <지주부>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제한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주부>를 조선 후기 사물 글쓰기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의 이덕무(李德懋)와 남공철(南公轍)의 시문에서도 거미의 줄과 움직임, 먹이를 포획하는 과정 등을 세밀하게 관찰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거미라는 작은 생물을 구체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일 이 이옥에게만 고립되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일한 소재를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글로 형상화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이덕무와 남공철의 글이 거미의 움직임과 생태, 사물의 성정에 대한 관찰을 보여 준다면, 이옥의 <지주부>에서는 그러한 관찰이 거미의 직접적인 발화와 논변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간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되돌아보게 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따라서 동시대 거미 글쓰기의 검토는 이옥의 독창성을 ‘거미를 처음 자세히 바라본 작가’라는 데서 찾기보다, 세밀한 사물 관찰을 발화와 자기 변론, 인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전환한 방식에서 찾게 한다.

이옥의 <담충(談蟲)>¹¹⁾ 역시 이러한 해석을 보완하는 자료가 된다. <담충>에서 이옥은 어린 시절 거미를 죽이는 것을 좋은 일로 여겼던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거미가 먹이를 얻기 위해 만드는 그물보다 인간이

11) 본고에서 인용하는 <담충>의 원문은 이옥, <담충>,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4(자료편·원문), 휴머니스트, 2009를 저본으로 삼았다. 자료 원문 351~360쪽에 있다. 번역문은 『완역 이옥전집』 3, 166~204쪽을 참조하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시기와 의식, 교묘한 말과 가혹한 법을 통해 만드는 그물이 더욱 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서도 거미에 대한 판단의 변화는 미물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살피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은 <지주부>에서 거미의 변론이 일회적인 의인화의 장치가 아니라 이옥이 인간과 미물의 관계를 바라보는 보다 지속적인 사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본고는 <지주부>를 중심으로 두 단계의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작품 내부의 전개를 따라 거미가 인간에게 규정되는 대상에서 발화 주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핀다. 첫째, 이자가 거미의 포식 행위를 어떠한 언어로 규정하고 제거를 정당화하는지 검토한다. 둘째, 거미가 자신의 생존을 설명하고 인간의 어망·사냥·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되묻는지 분석한다. 셋째, 거미가 여러 벌레의 습성과 욕망을 분류하는 부분을 통해 자기 변론이 인간 사회의 명리와 욕망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주부>의 핵심이 거미의 선악을 판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인간 자신의 행동이 다시 검토되는 데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작품 내부의 분석을 전통과 동시대의 글쓰기라는 맥락으로 확장한다. 먼저 포식자로서의 거미가 전대 문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피고, <지주부>에서 거미가 발화와 변론의 주체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검토한다. 이어 <힐서대>와 <문대>를 제한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아, 미물의 행동이 인간의 판단으로 되돌아오는 방식과 <지주부>의 차이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덕무와 남공철의 거미 소재 글쓰기를 함께 살펴 조선 후기의 세밀한 사물 관찰이라는 문맥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이옥이 거미에 대한 관찰을 인간의 자기 성찰로 전환하는 방식을 논한다.

결국 본고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주부>가 단순히 거미를 의인화하

거나 인간 사회를 미물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옥은 거미가 다른 벌레를 포획한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바라보는 인간의 판단을 작품 안에서 다시 문제 삼는다. 거미가 인간의 언어를 획득하고 인간이 마련한 판단 기준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는 순간, 미물에 대한 관찰은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로 바뀐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포식자 형상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그 형상을 유지한 채 발화와 시선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변주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옥의 미물 글쓰기가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 동시에, 조선 후기 문인들이 작은 사물의 관찰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사유한 방식의 한 면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지주부>의 거미 형상과 인간 비판

<지주부>의 서사는 인간이 거미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지만, 그 판단은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한 방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처음에 거미는 다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줄을 치는 포식자로 인식되고, 이자는 그러한 행위를 인간의 도덕적 언어로 해석하여 거미를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거미가 직접 자신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고 인간의 포획 행위를 되물기 시작하면서 판단의 방향은 달라진다. 더 나아가 거미는 자신의 그물에 걸리는 여러 벌레의 습성과 욕망을 분류하고 평가함으로써, 인간에게 판단받던 대상에서 인간 사회를 비추어 보는 발화 주체로 이동한다.

이러한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거미의 부정적 형상이 단순히 긍정적 형상으로 뒤집힌다는 데 있지 않다. 작품은 거미의 포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거미 역시 자신이 다른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인간이 거미의 생존 방식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

기준을 인간 자신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놓인다. 따라서 <지주부>의 인간 비판은 거미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보다 인간이 독점해 온 판단의 위치를 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인간의 규정, 거미의 자기 변론, 그리고 벌레의 욕망을 통한 인간 사회의 형상화라는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미에 대한 인간의 규정과 거미의 발화

<지주부>의 첫 장면에서 이자는 거미 자체보다 먼저 거미줄을 본다. 그러나 그에게 거미줄은 단순한 자연의 구조물이 아니다. 그는 거미가 줄을 치는 행위에서 의도와 계산을 읽어내고, 그 판단을 근거로 거미줄을 없애려 한다.

이자는 거미에게 피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겨 지팡이를 들어 그 줄을 휘저어 모두 없애고, 이어 거미까지 치려 하였다. 그때 마치 줄 위에서 누군가 외쳐 말하는 듯하였다. “나는 내 실을 짜서 내 배를 채우려 할 뿐인데, 이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며, 어찌 나만 생명을 해치는 존재라 하겠는가?” 이자가 노하여 말하였다. “기계를 설치하여 생명을 해치니, 너는 벌레 가운데 도적이다. 내가 장차 너를 없애어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겠다.”¹²⁾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표현은 피하는 마음이라는 뜻의 기심(機心)이다. 이자는 거미가 줄을 치는 행위를 단순히 먹이를 얻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줄 뒤에 다른 생명을 포획하려는 계산과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 순간 거미줄을 일종의 함정으로 해석한다. 거미의

12) 이옥(2009), 앞의 책 1, 93~94쪽(번역문); 앞의 책 4, 54쪽(원문).

“李子以爲有機心也，舉杖揮其絲，盡之且欲朴之，若有呼于絲上者，曰：‘我織我絲，以謀我腹，何與于子伊我之毒？’” 李子怒曰：‘設機狀生，蟲中之賊，吾且除爾，爲它蟲德。’

행동에 인간의 의도 개념을 투사한 뒤 그것을 다시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미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혐오나 불쾌감에서 나오기보다, 거미가 다른 생명을 해친다는 판단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자의 판단은 “벌레 가운데 도적(蟲中之賊)”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거미의 포식은 먹이를 얻는 행위에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바뀌고, 거미는 포식자에서 ‘도적’이라는 도덕적 범주에 편입된다. 특히 이자가 거미를 없애어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거미가 직접 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벌레를 대신하여 거미의 생존 방식을 심판하고, 거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다. 이 장면에서 인간은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미물 사이의 선악을 구분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판단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작품은 바로 그 판단이 실행되려는 순간 거미에게 말을 부여한다. “줄 위에서 누군가 외쳐 말하는 듯하였다(若有呼于絲上者)”라는 표현은 거미의 발화가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거미는 인간과 대등하게 마련된 대화의 장에서 차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자가 이미 거미줄을 휘저어 없애고 거미까지 치려 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목소리를 얻는다. 따라서 거미의 발화는 인간의 판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발생한 급박한 응답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거미의 첫 번째 응답 역시 자신의 행위를 감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나는 내 실을 짜서 내 배를 채우려 할 뿐(我織我絲, 以謀我腹)”이라는 말에서 거미는 줄을 친 이유가 먹이를 얻기 위한 것임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거미는 자신이 다른 생명을 포획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행위가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그것이 왜 인간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죄가 되는지를 되묻는다. 여기에서 논점은 거미의 포식 여부에서 인간이 그 포식을 심판할 근거

가 있는가의 문제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구성은 전대 문학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온 거미의 위치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정선은 이규보의 <방선부> 등에서 거미가 매미를 해치는 포식자로 나타나는 데 비해, <지주부>에서는 거미가 직접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변론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¹³⁾ 중요한 것은 이옥이 포식자인 거미를 선한 존재로 바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주로 인간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되던 거미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거미는 인간 판단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 판단의 근거를 되묻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작품의 첫 장면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나쁜 거미’에서 ‘좋은 거미’로의 가치 전환이라기보다, 판단되는 대상에서 말하는 주체로의 위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자는 거미의 첫 응답에도 분노하며 여전히 자신이 거미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거미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역전되는 것은 거미가 인간의 포획 방식을 자신의 행위와 나란히 놓고 반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 거미의 자기 변론과 인간 판단의 역전

거미의 첫 발화가 자신의 생존 방식을 해명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어지는 변론에서는 논의의 범위가 인간의 행위와 제도로 확대된다. 거미는 이자가 자신을 ‘도적’으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방어하기보다, 인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생명을 포획하고 처벌한다는 사실을 끌어들인다.

13) 이정선(2003), 앞의 논문, 147~148쪽 참조.

다시 웃으며 말하는 자가 있었다. “아, 어부가 그물을 쳐 바닷물고기가 걸리는 것이 어부의 포획 때문이겠는가? 사냥꾼이 그물을 펼쳐 들짐승이 푸죽간에 오르는 것이 어찌 사냥꾼의 잘못이겠는가? 법관이 법을 내걸어 완악한 사람에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그대는 어찌 복희씨의 그물을 시비하지 않고, 백익의 사냥을 막지 않으며, 고요의 판단을 책망하지 않는가? 그것들이 나의 일과 무엇이 다른가?”¹⁴⁾

이 부분은 <지주부>의 자기 변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앞에서 이자는 거미줄을 다른 생명을 해치기 위해 설치한 장치로 보았다. 이에 대해 거미는 자신이 줄을 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위를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포획 장치와 병치한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고, 사냥꾼은 짐승을 잡기 위해 그물을 펼친다. 법관 역시 법이라는 기준을 세워 사람을 처벌한다. 거미의 논리는 자신에게 적용된 인간의 언어와 판단 방식을 그대로 인간에게 돌려주는 데서 성립한다.

특히 복희씨의 그물, 백익의 사냥, 고요의 판결을 차례로 끌어온 점은 단순한 생태적 유사성을 넘어선다. 거미는 아무 인간이나 예로 들지 않고 인간 문명의 질서 안에서 일정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포획과 사법의 행위를 제시한다. 인간이 그물과 사냥, 처벌을 문명과 질서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거미의 줄만을 ‘도적의 장치’로 규정한다면, 그 판단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나의 일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반문은 이자의 판단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겨냥한다. 여기서 거미의 변론을 인간과 거미의 행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어부의 어업, 사냥꾼의 사냥, 법관의 처벌과 거미의 포식은

14) 이옥(2009), 앞의 책 1, 94~95쪽 (번역문); 앞의 책 4, 54쪽(원문).

“復有笑而語者曰:“噫!漁夫設網, 海魚惟錯者, 是漁夫之虐也? 虞人張羅, 野獸登庖者, 豈虞人之教也? 士師懸法, 庶頑圜扉者, 抑士師之非也? 子何不諫伏羲之網, 抹伯益之烈, 責皋陶之讞乎? 何以異於是?”

각각 목적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동일한 행위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이 자기 행위에는 허용하는 포획의 논리를 거미에게는 왜 악의 증거로 적용하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데 있다. 즉 거미의 비유는 인간과 미물의 차이를 지우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예외로 두고 판단해 온 기준의 불일치를 노출한다.

이 점에서 <지주부>의 변론은 일방적인 생명 옹호의 논리와도 거리가 있다. 거미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므로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당연하게 수행하는 포획과 처벌의 사례를 인간 자신의 언어로 제시하면서, 동일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김정미가 이옥의 벌레 인식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고정된 위계로만 파악하지 않는 태도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수 있다.¹⁵⁾ 거미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보다 우월한 진리를 말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기준으로 구축한 판단 체계를 잠시 외부에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자와 거미의 위치 역시 바뀐다. 작품의 시작에서 질문하고 판정하는 쪽은 이자였다. 그는 거미에게 꺾히는 마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벌레 가운데 도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직접 지팡이를 들어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거미가 인간의 그물과 사냥, 법을 차레로 제시한 뒤에는 오히려 이자의 판단이 설명을 요구받는다. 처음에는 인간이 거미를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거미의 질문을 통해 인간의 포획 행위와 판단 기준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심문의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지주부>의 논변 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민희주는 이옥의 글쓰기에서 하나의 고정된 관점만으로 세계를 설명하기보다 관점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에 주목하였

15) 김정미(2021), 앞의 논문, 9~34쪽.

다.¹⁶⁾ <지주부>에서도 인간이 바라본 거미와 거미의 위치에서 바라본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한다. 작품은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옳은 위치에 세우기보다 두 시선을 충돌시킨다. 바로 그 충돌을 통해 처음에는 자명해 보였던 인간의 판단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역전은 작품의 결말에서 더욱 구체적인 몸짓으로 표현된다.

이자는 지팡이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넘어져 문에 이르렀으며,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몸을 굽히고서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¹⁷⁾

처음에 이자는 지팡이를 들어 거미를 제거하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지팡이를 버리고 달아난다. 세 번이나 넘어지고 문을 잠근 뒤에야 한숨을 돌리는 모습에는 분명 희극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거미가 인간을 말로 이겼다는 승패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이자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처음의 이자는 거미를 판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주체였으나, 결말에서는 그 판단의 확실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정선은 이러한 결말을 박지원의 <호절>에서 인간이 타자의 말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¹⁸⁾ <호절>에서 호랑이가 유자의 도덕적 가식을 꾸짖는다면, <지주부>에서는 거미가 이자의 인간중심적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명리 욕망을 되묻는다. 박수밀 역시 이옥 문학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양상을 ‘자기 패배의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¹⁹⁾ 여기에서 ‘패배’는 미물이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라기보다,

16) 민희주(2018), 앞의 논문, 259~286쪽, 특히 268쪽 참조.

17) 이옥(2009), 앞의 책 1, 100쪽 (번역문); 앞의 책 4, 54쪽(원문).

“摘杖而走，三蹶及樞，關戶下鑰，俯而始吁。”

18) 이정선(2003), 앞의 논문, 153쪽.

19) 박수밀(2017), 앞의 논문, 245~268쪽.

인간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과정에 가깝다. 거미를 심판하려 했던 인간이 오히려 자신의 판단 기준을 다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지주부>의 결말은 인간을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의 가능성을 남긴다.

3) 벌레의 욕망 분류와 인간 사회 비판

거미의 발화는 자신의 생존 방식을 변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거미는 자신의 그물에 걸리는 나비·파리·매미·벌·모기·잠자리 등의 습성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때 벌레의 생태적 특징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성향과 결합하며, 거미줄은 여러 욕망과 행태가 모이는 공간으로 확대된다.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일 뿐,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변화함을 좋아하여 좇으며 흰 꽃에 아첨하고 붉은 꽃에 아양 떠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그물로 잡는다. 파리는 참으로 소인배라. 옥 또한 참소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곳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그물로 잡는다. 매미는 자못 청렴 정직하여 글을 잘하는 선비와 비슷하지만 잘 운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시끄럽게 울어 그칠 줄 모른다. 이 때문에 내 그물에 들어온다. 벌은 실로 승냥 같은 놈이라. 제 몸에 꿀과 칼을 지니고 망령되어 관아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공연히 봄꽃 찾아다니는 일을 일삼는다. 이 때문에 내 그물에 들어온다. 모기는 가장 영리한 놈이라. 성질이 도칠 같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타나서 사람의 고혈을 빨아낸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것을 내 그물로 잡는다. 잠자리는 지조가 없다. 경박한 공자처럼 평안히 있을 겨를이 없으며 홀연히 바람에 날리듯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또한 내 그물로 잡는다.²⁰⁾

20) 이옥(2009), 앞의 책 1, 95~97쪽(번역문); 앞의 책 4, 54쪽(원문)

“蝶惟浪子, 粉飾欺世. 趨慕繁華, 白佞紅壁. 以是吾得網之. 蠅固小人, 玉亦見譖.”

거미는 나비를 허랑한 자(浪子)에 견주면서 화려하게 꾸며 세상을 속이고 변화함을 좇으며 흰 꽃과 붉은 꽃에 아침한다고 말한다. 파리는 소인(小人)으로 규정되어 술과 고기에 목숨을 잇고 이익을 탐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로 묘사된다. 매미는 청렴하고 곧은 듯 보이지만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랑하며 끊임없이 떠드는 존재이고, 벌은 몸에 꿀과 침을 함께 지니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꽃을 쫓는 존재로 나타난다. 모기는 성질이 도철과 같아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타나 사람의 피를 빠는 존재이며, 잠자리는 일정한 지조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경박한 공자에 견주어진다. 이처럼 각 벌레의 특징은 외양과 아침, 이익 추구, 자기 과시, 명분과 사욕의 불일치, 은밀한 착취, 경박함이라는 인간 사회의 언어로 번역된다.

이 가운데 나비와 파리는 욕망이 외부 대상을 쫓는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나비가 화려한 꽃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변화함과 호의를 쫓는 태도로 바뀌고, 파리가 음식물에 달라붙는 습성은 이익을 탐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이옥은 벌레의 생태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만을 설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쫓아 움직이는가, 그 움직임이 어떠한 욕망에 의해 반복되는가를 연결하여 벌레의 행동을 인간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다시 읽는다.

매미와 벌의 경우에는 외면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격이 두드러진다. 매미는 청렴하고 곧은 존재로 인정되면서도 자신의 울음을 스스로 자랑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매미에 부여되어 온 고결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자기 과시의 가능성과 함께 제시된다. 벌 역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忘生酒肉，嗜利無厭。以是吾得網之。蟬頗廉直，縱似文士。自誇善鳴，叫聒不已。是以入吾網。蜂實豺狼，蜜釀其身。妄稱赴衙，空事探春。是以入吾網。蚊最隱秘，性如饕餮。晝伏夜行，淩人膏血。吾是以必網之。蜻蜓無行，公子佻佻。不遑寧居，倏如風飄。吾是以亦網之。”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을 쫓는 행동에 몰두한다. 이 경우 풍자의 초점은 행위 자체보다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과 실제 욕망 사이의 어긋남에 놓인다. 이옥은 청렴이나 공적 명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가치가 자기 과시와 사적 욕망을 가리는 외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벌레의 습성을 통해 드러낸다.

모기와 잠자리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모기의 흡혈은 다른 존재의 생명력을 몰래 취하는 행위로 표현되며, 은밀한 탐욕과 착취의 이미지로 확대된다. 반면 잠자리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습성을 통해 지조와 지속성이 결여된 인간형으로 형상화된다. 하나는 타인의 것을 은밀하게 빼앗는 욕망을,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관계나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경박함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여섯 벌레는 하나의 도덕적 유형으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욕망과 행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거미가 각 벌레의 특징을 설명한 뒤 그것이 자신이 그 벌레를 잡는 이유라고 말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거미줄은 단순히 먹이를 포획하는 물리적 장치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벌레들은 각각 자신이 좋아하고 쫓는 대상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한 습성과 욕망의 끝에서 거미줄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거미줄은 <지주부>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처음에서 이자는 거미줄을 다른 생명을 해치는 잔교한 장치로 판단하였다. 이어 거미는 그 줄을 인간의 어망과 사냥의 그물, 법망에 견주어 인간의 판단 기준을 되묻는다. 작품 후반에 이르면 다시 그 거미줄은 여러 벌레의 욕망과 행동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하나의 거미줄이 포식의 장치, 인간의 포획 질서를 비추는 비유, 그리고 욕망의 귀결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거듭 의미화되는 것이다. 신익철은 이옥 문학에서 일상적인 사물이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기능한다고 보았다.²¹⁾ 이러한 논의는 <지주부>의 거미줄에

도 적용할 수 있다. 거미줄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미세한 사물이지만, 이옥은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조와 기능을 인간 사회의 포획, 욕망, 판단의 문제로 확대한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나 추상적인 도덕 명제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작은 사물과 벌레의 움직임에서 인간 사회의 작동 방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처음에는 이자가 거미를 ‘도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지만, 작품 후반에서는 거미 역시 나비·파리·매미·벌·모기·잠자리를 일정한 인간형에 견주어 평가한다. 즉 판단하는 위치가 인간에게서 거미로 단순히 옮겨 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다’는 행위 자체가 작품 안에서 반복된다. 인간은 거미를 도덕화하고, 거미는 다시 다른 벌레의 습성을 인간 사회의 도덕적 언어로 분류한다. 이러한 중첩 때문에 <지주부>를 거미의 말이 인간의 말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순한 가치 전복으로 읽기는 어렵다. 오히려 작품의 풍자성은 판단의 위치가 계속 이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독자는 처음에는 이자의 시선에서 거미를 바라보다가 거미의 말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거미가 분류한 여러 벌레에서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과 미물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판단자가 되기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위치가 교차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행동이 낯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부>에서 거미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미물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에게 제거될 위기에 놓인 대상에서 자기 생존을 변론하는 주체가 되고, 다시 인간의 포획 질서를 되묻는 질문자가 되며, 끝내 여러 벌레의 행태를 통해 인간 사회의 욕망을 드러내는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이러한 서사적 이동은 <지주부>의 인간 비판이 단순한 의인화나 미물에

21) 신익철(2006), 앞의 논문, 181~213쪽.

대한 연민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옥은 거미의 입을 통해 인간이 미물을 판단하는 방식과 인간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한 작품 안에 겹쳐 놓는다. 그 결과 거미줄에 걸린 것은 벌레들만이 아니다. 벌레에게서 자신의 욕망과 행태를 보게 되는 인간 역시 작품이 펼쳐 놓은 비판적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3. 전통적 미물 글쓰기와 <지주부>의 변주

앞 장에서는 <지주부>의 내부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에게 규정되던 거미가 자신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고 인간의 판단을 되묻는 발화 주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거미가 자신의 줄을 인간의 어망과 사냥, 법 집행의 구조와 견주고, 다시 여러 벌레의 습성을 인간 사회의 욕망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미물 사이의 판단 관계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주부>를 작품 내부에서만 읽기보다 거미와 미물을 다루어 온 기존의 글쓰기와 나란히 놓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비교는 서로 다른 작품을 같은 형식과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묶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거미는 이전 문학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형상화되었으며, 미물이 인간의 행동을 비추는 방식 또한 작품마다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먼저 전대의 거미 형상 가운데 <지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포식과 판단의 문제를 살피고, 이어 명대(明代)의 <힐서대>와 <문대>를 제한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지주부>의 변론 방식이 지닌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덕무와 남공철의 거미 소재 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문인들이 거미의 움직임과 행태를 세밀하게 바라보던 시선 속에서 이옥의 글쓰기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 포식자의 표상과 거미 형상의 전환

거미를 전통적으로 ‘해충’이었다고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생태적 분류의 차원에서 거미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학에서 형성된 거미의 이미지도 역시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한시에서 거미는 황폐한 공간을 드러내거나 길흥의 징조와 연결되기도 하고, 거미줄과 포식 행위를 통해 특정한 인간의 행태를 비유하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해충’은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도덕적 가치 판단에 따라 미물을 부정적으로 규정해 온 문학적 시선을 가리키는 제한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성규 역시 한국 한시의 거미 형상이 포식자나 부정적 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상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²²⁾ 이 점을 전제로 할 때, <지주부>의 거미 형상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선행 작품은 이규보의 <방선부>이다. <방선부>²³⁾에는 거미와 매미가 함께 등장하지만, 두 존재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작품의 화자는 처음부터 거미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포식자로 바라보며, 매미는 맑고 깨끗한 존재로 인식한다. 흥미로운 것은 작품 중간에 이러한 인간의 판단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왜 매미의 생명은 구하면서 거미는 굶게 하느냐는 반문을 통해 인간이 두 생명을 차별하는 근거가 잠시 질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작품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미의 탐욕과 매미의 청정함을

22) 강성규, 「'거미' 소재 한국(韓國) 한시(漢詩) 고찰(考察)－거미 의상(意象)의 양상과 의상군(意象群)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5, 근역한문학회, 2020, 285~320쪽.

23) 이규보, <방선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국이상국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82, 61~62쪽.

대비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인간의 시선이 한때 의심받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거미와 매미 사이의 도덕적 위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와 비교하면 <지주부>의 변화는 단순히 거미를 부정적 존재에서 긍정적 존재로 바꾸었다는 데 있지 않다. 두 작품 모두 거미가 줄을 치고 다른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포식이라는 생태적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차이는 누가 그 행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가에 있다. <방선부>에서 거미는 끝내 인간의 평가를 받는 대상에 머물지만, <지주부>에서는 거미가 직접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인간이 부여한 죄의 이름을 되돌려 묻는다. 다시 말해 전자의 핵심이 거미와 매미의 도덕적 차이를 판별하는 데 있다면, 후자에서는 그와 같은 판별을 수행하는 인간의 기준 자체가 논쟁의 대상으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지주부>에서 거미가 자신의 포식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거미는 자신이 줄을 치는 목적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생존 방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부의 그물과 사냥꾼의 포획, 법관의 처벌을 끌어와 인간 역시 생존과 질서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잡고 가두고 처벌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거미에게 붙여진 ‘도적’이라는 이름이 이 과정에서 곧바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지주부>의 거미 형상은 기존의 부정적 상징을 단순히 뒤집는 가치 전도라기보다, 인간이 미물을 평가하던 판단의 위치를 흔드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옥의 <담충>을 함께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어린 시절에 거미를 한 말 가득 죽이면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거미를 보면 반드시 그물을 허물고 거미를 죽였다. 자라서 생각해 보니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이러한 말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거미가 그물을

쳐 여러 벌레를 잡는 것을 몹시 미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 악을 없애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거미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간 가운데 거미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²⁴⁾

어찌 이뿐이겠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맺고, 의심스러운 곳에 그것을 펼치며, 교묘한 말로 그 버리를 삼고 가혹한 법으로 그 줄을 삼는다. 마침내 토끼를 잡는 그물에서 꿩이 죽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은 거미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오직 인간은 때때로 행한다. 그러면서도 어찌 배를 채우려는 거미를 벌하고, 도리어 자신은 생명을 해치는 죄목에 빠지는가. 그러므로 거미 다섯 말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마음속에 그물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만들지 않는 편이 더 큰 음덕이다. 나는 이때부터 다시는 거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다.²⁵⁾

<담충>에서 이옥은 자신이 어린 시절 거미를 죽이는 일을 좋은 일인 줄 아는 행위라고 여겼던 경험을 되돌아본다. 그러나 이후에는 거미가 배를 채우기 위해 벌레를 잡는 행위와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치는 행위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판단을 수정한다. 특히 그는 시기와 질투로 그물을 만들고, 의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펼치며, 교묘한 말과 가혹한 법으로 타인을 옴아 때는 인간의 행위를 거미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묘사한다. 결국 거미를 많이 죽이는 것보다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물을 만들지

24) 이옥(2009), 앞의 책 3, 178쪽(번역문); 앞의 책 4, 354쪽(원문).

“兒時，聞蛛殺盈斗，宜福宜壽，見蜘蛛，則必毀其網而殺之。及長思之，是大不然。爲是言者，蓋深惡蜘蛛之網打諸多，欲人之共除其惡。而今若以蛛而視人，則人之不爲蛛者，幾人耶？”

25) 이옥(2009), 앞의 책 3, 179쪽(번역문); 앞의 책 4, 355쪽(원문).

“奚徒是也？結之以忌剋之心，張之於疑似之地，而巧言爲其總，苛法爲其椿，竟使雉死于兔羅，鴻離于魚網者有之。則此又蜘蛛之所不爲，而惟人或爲之矣，又何誅於蜘蛛之求飽，而反自陷於傷生之科耶？然則與其殺五斗蜘蛛，毋寧於自己心上，不作網害之念者，是大陰德也。余自此不復殺一蜘蛛也。”

않는 것이 더 큰 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거미를 죽이지 않았다고 밝힌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미에 대한 재평가가 곧 인간의 자기 성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거미가 먹이를 잡는 목적은 생존에 있지만, 인간의 그물은 생존을 넘어 시기와 질투, 의심, 권력과 제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판단의 방향은 외부의 거미를 제거하는 데서 인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는 방향으로 옮겨 간다. “자기 마음속에 그물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인간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윤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주부>와 <담충>은 인간의 포획을 거미줄과 나란히 놓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지주부>에서는 인간에게 심문받는 거미가 인간의 포획 행위를 증거로 끌어와 스스로를 변론한다. 반면 <담충>에서는 과거에 거미를 죽였던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인간의 그물이 오히려 거미보다 더 복잡하고 잔혹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전자가 피고의 위치에 있던 미물이 심판자의 판단을 반박하는 형식이라면, 후자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던 인간이 자기 판단을 수정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담충>에서 이옥은 벌레라는 범주 자체를 인간과 분리된 하위 생명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아, 천지 사이에서 생명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벌레이다. 날개가 있는 우충, 털이 있는 모충, 비늘이 있는 인충, 겹질이 있는 개충이 있으며, 문헌에는 맨몸의 나충도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 거대한 곤과 봉, 신령한 거북과 용도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벌레이다. 삼백 나충 가운데 인간이 그 우두머리이지만, 인간 역시 나충에 속하는 벌레이다.²⁶⁾

26) 이옥(2009), 앞의 책 3, 181쪽(번역문); 앞의 책 4, 355쪽(원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명을 지니고 움직이는 존재를 넓은 의미의 벌레로 바라보고 인간 역시 그러한 생명 가운데 하나임을 상기한다. 이것을 인간과 모든 생명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옥은 거미의 포식이나 벌레가 인간에게 주는 실제 불편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자신을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다른 생명을 일방적으로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를 다시 묻게 한다.

이 점에서 <지주부>에서 확인되는 거미 형상의 변화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판단 속에서 거미는 먼저 포식하고 해치는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옥의 작품에서는 그 거미가 자신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 발화 주체가 되고, 다시 인간에게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자로 이동한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악한 거미’가 ‘선한 거미’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에게 판단되는 거미가 인간의 판단을 다시 문제 삼는 거미로 바뀐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이 <지주부>를 전대의 거미 표상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2) 명대 미물 우언과의 거리—〈힐서대〉·〈문대〉를 중심으로

<지주부>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명대의 <힐서대>와 <문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 작품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하거나, 세 작품을 동일한 문체와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지주부>는 부(賦)의 형식을 바탕으로 거미와 이자의 문답을 전개하는 반면, <힐서대>와 <문대>는 대(對)의 형식을 제목에 내세운 산문적 글쓰기이다. 더욱이 <문대>에서는 모기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 명대 작품을 살피는 목적은 세 작품을 하나의 유형

“嗚呼！天地之間，含生而能動作者，皆蟲也。有羽蟲、毛蟲、鱗蟲、介蟲，文有曰“倮蟲”者，則麟鳳之瑞，鯢鰐之鉅，龜龍之神，自天視之，皆是蟲也。三百倮蟲，人爲之長，則人之爲蟲，尤近於倮。”

으로 묶는 데 있지 않고, 미물이 인간의 판단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과정에서 <지주부>가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를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지주부>와 구조적으로 비교하기에 가장 가까운 작품은 뇌례의 <힐서대>이다.

뇌자가 정사의 서쪽 모퉁이를 거닐다가, 동자가 교활한 쥐를 잡으려고 쇠꼬챙이로 나무를 찌르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참혹하였다. 뇌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하였다. “아, 잔혹하구나! 또한 너무 심하지 않은가?” 동자가 말하였다. “이 쥐가 공간을 뚫고 배불리 먹어 곡식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쥐도 짹 짹거리며 우는데, 마치 하소연하려는 듯하였다. 뇌자가 말하였다. “쥐에게도 말이 있는가?” 이에 쥐의 소리를 알아듣는 이를 찾아 심문하게 하였다.²⁷⁾

이 작품에서 쥐는 인간의 곡식 창고를 침범하고 곡식을 먹은 존재로 등장한다. 작품은 쥐의 절도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쥐를 죽이기 위해 가해지는 폭력이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에서 논변이 시작되고, 쥐의 울음이 하소연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쥐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음은 쥐의 하소연한 내용이다.

쥐가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공께서는 저를 살려 주십시오. 무릇 하늘이 배풀고 땅이 이루어, 먹고 머금은 온갖 무리가 있습니다. 구멍에 사는 것은 씹어 먹고, 갇혀 사는 것은 쪼아 먹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빨아 먹고, 뿌리박고 사는 것은 기식하니, 이 모두가 군자께서 마음을 미쳐야 할 바입니다. 지금 조물주가 저에게 형체를 빌려 주어 곡식을 먹는 무리와 같은 부류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장차 저로 하여금 이렇게 구구하게 살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

27) 雷子遊精舍之西隅，見童子捕黠鼠，以鐵刺木，甚慘。愀然曰：“噫，毒哉！不亦太甚乎？”童子曰：“是穴困充餐，粟幾罄矣。”然鼠亦唧唧聲，若將訴然。雷子曰：“鼠有言乎？”因命覓鼠音者鞠之。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으므로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의 표점은 필자가 하였다.

다. 주인이 저를 울타리나 우리 안에 두고 먹을 것을 주는 부류로 삼지 않았으니, 비록 절개를 지키고자 하더라도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가 없어져도 된다면, 조물주의 뜻도 헛된 것이 될 터이니, 차라리 애초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같겠습니까? 또 저는 낮에는 숨어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법을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저녁을 기다려 흠치니, 또한 큰 창고의 한 알갱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용서받지 못할 큰 죄로 머리를 부수고 가슴을 깨뜨리려 하니, 어찌 천지가 저에게 질곡을 채운 것입니까? 무릇 엄지발가락에 붙어 난 것을 잘라내도 울고, 손에 걸가지로 붙어 난 것을 깨물어도 읍니다. 공께서는 이름난 어진 사람인데, 어찌 그리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공께서는 쥐의 행실은 알면서도, 세상에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생명의 정을 끊고 공공연히 빼앗고 흠치는 것이 쥐의 행실보다 훨씬 심한데도, 공께서는 그것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혹독한 일을 만났습니다.”²⁸⁾

쥐는 자신의 절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취한 것이 “큰 창고의 한 알갱이(太倉一粒)”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머리와 가슴을 부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히 빼앗고 흠치는 행위(公行捨竊)”를 거론하면서, 몰래 곡식을 먹은 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 왜 더 큰 약탈을 행하는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질문한다. 이러한 논리에는 <지주부>와 분명한 접점이 있다. 거미와 쥐 모두 인간이 문제 삼는 자신의 행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거미는 줄을 쳐 먹이를 잡고, 쥐는

28) “鼠俛首伏地，對曰：‘公其生我也！夫天施地成，啗函萬穢，穴者嚙，棲者嚼，潛者吸，植者嘅，皆君子所到心也。今造物假我成形，與粟食者彙，是將以我爲此拘拘耳。主人不列之樊籠，哀食食焉，雖欲守介，不得坐而待斃也。如此種可混，則造物爲虛，孰若勿生者哉？且予晝伏不動，畏主法惕，伺夕竊之，亦太倉一粒耳。乃重罪不赦，毀首碎胸，豈天地桎梏我耶？夫駢於拇者決之則泣，枝於手者斲之則啼。公名仁人，何其不相恤也？況公知鼠行矣，不知世有甚焉者。決性命之情，公行捨竊，其浮於鼠行多矣，而公不譏之。信遭哉！’”

곡식을 흠친다. 그런데 두 미물은 인간이 자신에게 적용한 기준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줌으로써 논변의 방향을 바꾼다. 거미는 인간의 그물과 사냥, 법을 제시하고, 쥐는 인간의 공공연한 약탈을 제시한다. 이로써 처음에는 미물의 잘못을 심판하던 인간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그럼에도 두 작품의 풍자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힐서대>에서 쥐의 논변은 절도와 약탈, 죄와 처벌의 비례라는 비교적 선명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쥐는 공식적인 심문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과 절도를 해명하고 인간의 선택적 처벌을 비판한다. 반면 <지주부>의 거미는 인간이 마련한 심문의 절차를 통해 발언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는 순간 스스로 말을 걸어온다. 또한 그 논변은 자신의 포식에 대한 해명에서 멈추지 않고 어망과 사냥, 법망을 거쳐 나비·파리·매미·벌·모기·잠자리 등의 욕망에 대한 분류로까지 확대된다. <힐서대>가 ‘작은 절도와 큰 약탈’ 사이의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면, <지주부>는 하나의 거미줄을 중심으로 생존, 포획, 법, 욕망과 명리의 문제를 겹쳐 놓는다.

결말에서도 차이가 선명하다. <힐서대>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쥐는 나무에 부딪혀 죽었다. 뇌자가 말하였다. “애석하구나! 쥐는 천형의 근심을 받고 세상에서 꾸짖음과 미움을 받는 존재인데, 하물며 또 쥐에게 꾸짖음을 받게 되었단 말인가?”²⁹⁾

<힐서대>의 쥐는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살아남아 인간에게 수치와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반대로 <지주부>에서는 신체적으로 제거되는 미물이 없다. 오히려 거미를 없애기 위해 지팡이를 들었던 이자가 거미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한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의

29) “觸木而斃。雷子曰：“惜也夫！鼠患天刑，爲世詬厲，矧又爲鼠所斥耶？”

판단 권위가 흔들리지만, 하나는 죽은 미물의 말이 인간에게 남기는 윤리적 부담을 통해, 다른 하나는 심판자가 희극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을 통해 그 효과를 완성한다.

<문대>와의 관계는 더욱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방효유의 작품에서는 모기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지 않는다.

생은 이에 자리를 털고 장차 자려다가 하늘을 부르며 탄식하였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런 미물을 낳아 사람을 해롭게 하는가?” 동자가 그것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어찌 자신을 대우함이 너무 후하고, 하늘을 원망함이 너무 굳으십니까?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의 두 기운이 뒤섞여 형체를 부여받고 바탕을 받음에, 사람과 사물이 나뉘었습니다. 큰 것으로는 코뿔소와 코끼리가 되고, 궤이한 것으로는 교룡이 되며, 사나운 것으로는 호랑이와 표범이 되고, 길들여진 것으로는 고라니와 사슴이 됩니다. 털과 깃을 가진 것들은 새와 짐승이 되고, 별거벗은 몸을 가진 것은 사람이 되며, 벌레가 됩니다. 모두가 다 길러지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비록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가운데 형체를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곧 스스로 자신의 귀함을 귀하게 여기며,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물과 땅의 사물, 생명을 가진 부류는 높은 곳에서는 그물에 걸리고 낮은 곳에서는 그물에 잡히며, 산은 바치고 바다는 공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도 그 목숨을 피하지 못하고, 기러기도 그 자취를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물을 먹는 것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사물만은 유독 사람을 먹을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 모기가 한번 주둥이를 대자 선생께서는 곧 하늘을 부르며 하소연하였었습니다. 인간에게 먹히는 사물들도 모두 울부짖으며 하늘에 호소한다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사물이 인간을 먹고 인간이 사물을 먹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 사이의 일이니, 그래도 말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기는 오히려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밝은 대낮에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틈을 엿보고, 사람이 지치고 경계가 느슨해진 때를 기다린 뒤에야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인간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곡식을 먹고 국을 마시는 것이 같으며, 아내를 두고 자식을 기르는 것도 같고, 의관과 겉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밝은 대낮에 버젓이 동류 사이의 틈을 타 그들을 능멸하고, 그들의 기름을 빨며 꿀수를 뽑아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굶주린 채 들판에 쓰러지고 길 위를 떠돌게 하며, 하늘을 부르짖는 소리가 서로 이어져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모기에게 한 번 물리기만 해도 잠자리가 곧 편안하지 않으면서, 같은 인간들이 서로 물어뜯는다는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한 듯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하는 군자의 도리이겠습니까?³⁰⁾

천태생이 모기에 물린 뒤 하늘을 원망하고, 이에 동자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논변을 펼친다. 그러므로 <문대>를 <지주부>나 <힐서대>와 같은 ‘미물의 직접 발화’ 작품으로 묶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문대>를 제한적인 비교 대상으로 남겨 둘 수 있는 이유는, 모기라는 작은 존재가 인간의 자기중심적 판단을 흔드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천태생에게 모기의 흡혈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진 즉각적인 피해이다.

30) 방효유(1996), 앞의 책, 196쪽.

“生乃拂席將寢，呼天而歎曰：‘天胡產此微物而毒人乎？’童子聞之，啞爾笑曰：‘子何待己之太厚，而尤天之太固也？夫覆載之間，二氣絪縕，賦形受質，人物是分。大之爲犀象，怪之爲蛟龍，暴之爲虎豹，馴之爲麋鹿，與庸狝羽毛而爲禽爲獸，裸身而爲人，爲蟲，莫不皆有所養。雖巨細修短之不同，然寓形於其中則一也。自我而觀之，則人貴而物賤；自天地而觀之，果孰貴而孰賤耶？今人乃自貴其貴，號爲長雄。水陸之物，有生之類，莫不高羅而卑網，山貢而海供。蛙黾莫逃其命，鴻雁莫匿其蹤。其食乎物者，可謂泰矣，而物獨不可食於人耶？茲夕蚊一舉喙，卽號天而訴之；使物爲人所食者，亦皆呼號告於天，則天之罰人，又當何如耶？且物之食於人，人之食於物，異類也，猶可言也。而蚊且猶畏謹恐懼，白晝不敢露其形，瞰人之不見，乘人之困怠而後有求焉。今有同類者，啜粟而飲湯，同也；畜妻而育子，同也；衣冠儀貌，無不同者。白晝儼然，乘其同類之間而陵之，吮其膏而鹽其腦，使其餓踣於草野，離流於道路，呼天之聲相接也，而且無恤之者。今子一爲蚊所嚙，而寢輒不安；聞同類之相嚙，而若無聞。豈君子先人後身之道耶？’”

그러나 동자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 사람은 귀하고 사물은 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천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귀천이 자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논의는 다시 인간 사회 내부로 이동하여, 모기는 남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피를 빨지만 인간은 같은 인간을 공개적으로 억압하고 삶의 기반을 빼앗는다는 문제로 확대된다. 결국 개인이 모기에게 물린 고통보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가하는 더 큰 고통을 왜 외면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 점에서 <문대>와 <지주부> 사이의 공통성은 ‘모기와 거미가 직접 인간을 비판한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 처음에는 미물의 행위를 자신의 위치에서만 해석하지만, 작품의 논변을 거치면서 그 판단이 인간 자신의 행위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발화 장치는 다르다. <문대>는 인간인 동자가 다른 인간의 시각을 수정하는 구조이다. 미물은 논변을 일으키는 계기이자 매개에 가깝다. 이에 비해 <지주부>에서는 판단 대상이었던 거미에게 직접 말할 자리가 주어지고, 거미 자신이 인간의 논리를 가져와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 이 차이는 세 작품을 함께 읽는 근거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힐서대>는 미물이 피고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인간의 더 큰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지주부>와 비교적 가까운 구조를 가진다. 반면 <문대>는 미물의 직접 발화라는 조건에서는 거리가 있으며, 인간 중심적 감각이 미물을 계기로 상대화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참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두 명대 작품은 <지주부>와 대등하게 병렬되는 세 개의 분석 대상이라기보다, 미물을 통해 인간의 판단을 되돌려 보는 서로 다른 방식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지주부>의 특징을 분명히 하기 위한 비교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주부>의 특징은 직접적인 미물의 발화에만 있지 않다. 거미가 자신에게 적용된 판단의 언어를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고, 그 논변을 인간 사회의 포획 구조와 다양한 욕망의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힐서대>의 쥐가 처벌과 약탈의 불균형을,

<문대>의 모기가 인간의 감각과 동류 상해 사이의 불균형을 드러낸다면, <지주부>의 거미줄은 여러 종류의 포획과 욕망이 동시에 얹히는 형식으로 기능한다.

3) 동시대 거미 글쓰기와 이옥의 관찰 시선

<지주부>의 거미 형상을 이옥 개인의 독특한 상상력만으로 설명하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 비슷한 시기의 문인들에게서 거미의 몸과 움직임, 거미줄을 세밀하게 살피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옮긴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덕무와 남공철의 글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사물 관찰이 ‘거미’라는 작은 대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주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동시대적 문맥을 제공한다.

이덕무의 <선굴당농소>에는 여름 저녁 콩꽃이 핀 울타리 부근에서 거미가 줄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본 기록이 보인다.

여름 저녁에 팥꽃이 핀 울타리 가를 거닐다가 기왓빔을 댄 거미가 실을 뽑아 그물을 짜는 모습을 보니, 그 오묘함이 부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다. 실을 뽑고 이것을 끌고 가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법이 매우 기묘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엮기도 했다. 그것은 흡사 보리를 심느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과, 거문고를 튕기느라 움직이는 손가락과도 같았다.³¹⁾

그는 거미가 실을 내고 당기는 과정과 다리의 움직임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리를 심는 사람의 발동작이나 거문고 줄을 다루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견주었다.

31) 이덕무, <선굴당농소>,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11, 민족문화추진회, 1997, 48쪽.

暑月之夕。步荳花籬畔。玩瓦色珠結絲。妙悟可以通佛。産絲汲絲。股法玲瓏。有時遲疑。有時揮霍。大畧如蔣麥之踵。按琴之指。

여기서 거미는 우선 도덕적 상징이나 인간 사회의 특정 인물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시선은 작은 몸에서 실이 나오고 그것이 연결되며 다리가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머문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거미를 보고 곧바로 ‘탐욕’이나 ‘간교함’이라는 기존의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덕무는 거미가 줄을 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움직임의 차이를 포착하고, 인간의 일상적인 노동과 예술 행위에 비유하여 그 정교함을 설명한다. 거미의 움직임은 이미 알고 있는 교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아야 비로소 발견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제시된다.

남궁철의 <지주편>도 다른 방식으로 거미의 생태를 구체적으로 포착한다.

공중에 떠 외로운 별처럼 매달리고, 길게 뻗은 실은 바람 부는 대로 따른다.
다리를 펼치니 작은 거미가 되고, 다리를 모으니 긴 다리의 거미가 보인다.
열흘 동안 한 자 남짓한 그물을 짜고, 저녁이 되면 조금씩 실을 토해 낸다.
날개 치던 나비는 그물 속에서 헤매고, 벌의 더듬이도 얹어 붙잡힌다.
새벽부터 밤까지 홀로 그물을 지키니, 바람과 비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텅 빈 듯하여도 몸을 얹어매고, 촌촌하기는 영진 기름과도 같다.
거미로 기쁨을 점친다는 육가(陸賈)의 이야기가 전하고, 풍자를 담아 경계한 적사종(翟嗣宗)의 시도 있다.
바쁜 손발로 그물의 버리를 펼치고, 가득 찬 배에서는 기이하고 정교한 솜씨가 나온다.
찬 밤에는 빠른 북이 오가는 듯하고, 이슬이 내리면 촌촌한 체처럼 이슬방울을 거른다.
오고 가며 애써 그물을 경영하고, 먹고 토해 내는 것은 배부름과 굶주림을 따른다.
제 이익을 도모함은 누에의 실과 다르고, 지혜를 부리는 모습에는 또한 탄식할 바가 있다.

이를 살펴 사물의 성정인 물성(物性)을 깨닫고, 운을 집어 짧은 시를 엮어 본다.³²⁾

이 작품에서 거미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그물을 만들고 저녁마다 실을 토 하며, 나비와 벌을 포획하고, 비바람 속에서도 거미줄을 지키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그린다. 작품의 후반에는 거미가 오가며 자신의 일을 경영하고 배부름과 굶주림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물의 성정을 깨달았다(悟物性)”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다. 즉 거미는 이미 정해진 상징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습성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덕무와 남공철, 이옥의 거미 글쓰기를 동일한 성격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거미라는 미세한 존재를 추상적인 상징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움직임과 습성에 시선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찰 이후 글이 나아가는 방향은 서로 다르다. 이덕무의 경우에는 거미가 실을 만들 때 보이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과 그 정교함이 중심에 놓이고, 그 움직임을 인간의 노동과 음악적 동작에 견주는 감각적 비유가 두드러진다. 남공철에게서는 줄을 짜고 먹이를 붙잡으며 바람과 비를 견디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 거미가 지닌 생활의 방식과 사물의 성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이옥은 거미의 포식 습성과 여러 벌레의 생태적 특징을 논변의 재료로 활용한다. 거미가 줄을 치고 먹이를 잡는 행동을 관찰한 뒤, 그것을 곧바로 탐욕이라는 기존

32) 남공철, <지주편>,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72』, 민족문화추진회, 2001, 28쪽.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浮處懸獨星。千尋任風隨。掀脚呼小蟬。抱足見長螭。十日構尺網。向夕吐寸絲。撲翅迷蝶子。胃鬚打蜂兒。晨夜自獨守。風雨不能隳。空蕩猶絆身。嚴密似凝脂。占喜傳陸說。含譏戒翟詩。忙手施綱紀。滿腹輸巧奇。夜冷聞疾梭。露下漏細蹄。來去費經營。吞吐隨飽飢。專利異蠶宿。役智歎多罹。覽茲悟物性。拈韻綴短詞。”

의 상징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그 행동이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 방식일 수 있다는 거미의 입장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고, 인간의 어망과 사냥, 법망을 함께 제시하면서 판단의 기준을 혼돈다. 다시 여러 벌레가 그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나비의 화려함, 파리의 이익 추구, 매미의 울음, 모기의 흡혈과 같은 구체적인 생태적 특징이 인간의 욕망을 읽어내는 언어로 변환된다. 즉 관찰된 사물의 특징이 단순한 묘사에서 끝나지 않고 발화와 논변, 인간 비판의 구조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고려하면 이옥의 독창성을 ‘거미를 세밀하게 관찰한 최초의 작가’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시대에 이덕무와 남공철 역시 거미의 몸과 줄, 움직임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오히려 <지주부>의 특징은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거미의 발화와 자기 변론으로 전환하고, 다시 그 발화를 인간의 판단과 사회적 욕망을 되돌아보는 구조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덕무가 거미의 움직임에서 정교한 묘미를 포착하고, 남공철이 거미의 생활 과정에서 사물의 성정을 읽었다면, 이옥은 거미의 생존 방식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문제 삼는다. 여기에는 <담충>에서 확인되는 이옥의 관찰 방식도 연결된다. 그는 벌레가 인간에게 주는 불편을 없다고 하지 않으며 거미가 다른 벌레를 잡아먹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느끼는 불편과 혐오를 곧바로 사물의 본질로 확정하지 않고 시선을 다른 위치로 옮겨 본다. 거미를 죽이던 인간의 위치에서 거미가 인간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할 때, 인간의 시기와 의심, 교묘한 말과 가혹한 법이 또 다른 ‘그물’로 보이기 시작한다. <지주부>에서는 이러한 시선의 이동이 거미와 이자의 직접적인 대화와 충돌로 더욱 극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므로 이덕무와 남공철의 작품은 <지주부>의 직접적인 영향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보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거미라는 작은 사물의 움직임과 생태를 새로운 관찰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

시대적 문맥으로 활용하는 편이 타당하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세 작가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거미라는 소재가 이덕무에게서는 움직임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발견하게 하고, 남공철에게서는 사물의 성정을 살피는 계기가 되며, 이옥에게서는 인간의 판단과 욕망을 되묻는 논변적 주체로 변한다는 차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주부>를 조선 후기의 사물 관찰과 분리된 예외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과, 반대로 동시대 사물 글쓰기의 일반적인 사례로 환원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게 한다. <지주부>는 작은 생물의 형태와 행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동시대 문인들의 세밀한 관찰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관찰한 거미에게 직접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 목소리가 인간의 판단을 반박하며, 다시 여러 벌레의 욕망을 통해 인간 사회를 바라보게 한다는 구성에서는 이옥 특유의 변주가 나타난다. 결국 이 작품에서 사물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사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서 있던 판단의 위치를 옮겨 보고, 그 위치에서 인간 자신의 행동을 다시 살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주부>의 거미는 전통적인 포식자 이미지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도 아니고, 명대 미물 우언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존재도 아니며, 동시대 사물 관찰의 일반적 대상으로만 머물지도 않는다. 이옥은 거미의 포식과 거미줄이라는 기존의 특징을 그대로 남겨 둔 채 그것을 발화와 논변의 조건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거미는 인간에게 평가받는 미물에서 인간의 평가 기준을 되묻는 주체로 이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 미물 글쓰기와 조선 후기의 세밀한 사물 관찰이 <지주부>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이옥의 <지주부>를 중심으로 거미의 형상과 발화 방식이 인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주부>의 특징은 포식자인 거미를 긍정적인 존재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이옥은 거미의 포식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인간에게 판단받던 거미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되물을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작품의 관심은 거미의 선악을 판정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미물을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인간의 판단 기준 자체를 돌아보는 방향으로 옮겨 간다.

거미의 변론은 자신의 생존을 해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간 사회의 욕망과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또한 전대의 거미 형상과 <담충>, 명대의 <헐서대>·<문대>, 이덕무와 남공철의 거미 소재 글을 함께 검토한 결과, <지주부>의 특징은 거미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러한 관찰을 발화와 논변의 구조로 전환했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미는 인간의 시선 아래 놓인 대상에서 인간의 언어와 판단을 되돌려 주는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해 미물에 대한 관찰은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주부>는 조선 후기의 세밀한 사물 관찰과 이옥의 인간 인식이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인간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옥의 미물 글쓰기가 사물의 관찰을 인간 성찰의 문제로 확장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 方孝孺 著, 徐光大 校點, 『遜志齋集』, 寧波出版社, 1996, 1~902쪽.
- 黃宗羲 編, 『明文海』 2, 中華書局, 1987, 1109~2214쪽.
-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1, 휴머니스트, 2009, 1~497쪽.
-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3, 휴머니스트, 2009, 1~486쪽.
-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4, 휴머니스트, 2009, 1~430쪽.
- 이덕무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11, 민족문화추진회, 1997, 1~271쪽.
- 남궁철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72, 민족문화추진회, 2001, 1~619쪽.
- 이규보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국이상국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82, 1~332쪽.
- 강성규, 「‘거미’ 소재 한국(韓國) 한시(漢詩) 고찰(考察)-거미 의상(意象)의 양상과 의상군(意象群)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5, 근역한문학회, 2020, 285~320쪽.
- 김경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별레에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34쪽.
- 김향남, 「李鈺의 ‘별레(蟲)’에 대한 인식과 문예적 의미」, 『국어국문학』 174, 국어국문학회, 2016, 123~152쪽.
- 민희주, 「李鈺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259~286쪽.
- 박수밀, 「이옥(李鈺)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325~356쪽.
- 박수밀, 「李鈺의 문학에 나타난 자기 패배의 글쓰기」, 『동방한문학』 73, 동방한문학회, 2017, 245~268쪽.
-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 인식」, 『한국실학연구』 12, 한국실학학회, 2006, 181~213쪽.
- 이정선, 「李鈺의 <蜘蛛賦> 考察」,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41~164쪽.

임유경, 「無名子 尹愔와 文無子 李鈺의 寓言」, 『이화어문논집』 41, 이화어문학회, 2017, 51~78쪽.

ABSTRACT

The Spider Figure and Human Reflection in Yi Ok's Jijubu

Liu, Dong-li

This study examines Yi Ok's (李鈺) Jijubu (蜘蛛賦),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spider figure and the human reflection embedded in that transformation. In Jijubu, the spider is not presented from the outset as a positive being. Yi interprets the spider's web-making as an act driven by calculating intention and defines the spider as a "thief among insects." He therefore attempts to destroy both the web and the spider. The spider, however, explains that its web is merely a means of survival and compares its own act of capture with human practices such as fishing with nets, hunting, and legal punishment. Through this counterargument, the spider questions the consistency of human judgment. It thus moves from being an object judged by humans to a speaking subject capable of explaining its own behavior and, ultimately, of questioning the very standards by which humans judge other beings.

The spider's argument extends beyond self-defense. By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butterflies, flies, cicadas, bees, mosquitoes, and dragonflies, the spider associates their behavior with various forms of human desire, including ostentation, flattery, pursuit of profit, self-display, the discrepancy between public justification and private desire, covert exploitation, and frivolity. The spider's web therefore develops from a simple device of predation into a broader image that reflects both human mechanisms of capture and the structures of desire. The significance of Jijubu lies not in transforming the spider from a negative being into a positive one, but in shifting the position from which judgment is made, thereby compelling humans to reconsider their own behavior and standards of evaluation.

To clarify this feature, the study also examines earlier representations

of spiders and Yi Ok's Damchung (談蟲), while using the Ming-dynasty works Hilseodae (黠鼠對) and Mundae (蚊對) as limited comparative references. In Hilseodae, the rat contrasts its minor theft with the far greater acts of plunder committed by humans, thereby criticizing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punishment. In Mundae, the mosquito does not speak directly; instead, a human interlocutor uses the mosquito as a point of departure for criticizing anthropocentric perception and violence among members of the same human community.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tinctive structure of Jijubu more visible, particularly the fact that the creature initially subjected to human judgment acquires its own voice and turns human language and standards of judgment back upon humans themselves.

The study further considers writings on spiders by Yi Deok-mu (李德懋) and Nam Gong-cheol (南公轍). Their works show that close observation of spiders' movements and habits was not unique to Yi Ok. What distinguishes Jijubu, however, is the way such observation is transformed into the spider's self-defense and into a broader critique of human judgment and desire. The originality of Jijubu, therefore, lies not simply in its detailed observation of a small creature, but in its transformation of such observation into a reflective mode of writing through which humans are led to reconsider their own values and conduct. In this sense, Jijubu may be understood as a work in which the close observation of small things in late Joseon literature converges with Yi Ok's distinctive mode of human reflection.

Key Words Yi Ok, Jijubu, spider figure, writing on small creatures, human reflection

논문투고일: 2026.06.28.
심사완료일: 2026.08.09.
게재확정일: 2026.08.13.